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구세진인 정도령의 제대로 된 나라 만들기

救世眞人 正道令

대한민국, 판도라의 상자

태초의 세상에, 제우스는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를 불러 여자인간을 만들라고 했고, 판도라라는 여자인간이 탄생하였다. 제우스는 판도라의 탄생을 축하하며 상자를 주었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를 주었다. 판도라는 신 프로메테우스의 동생과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어느 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상자를 열고 만다.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욕심, 질투, 시기, 각종 질병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것들은 판도라가 상자를 여는 순간 빠져나와 세상 곳곳으로 퍼졌다. 평화로웠던 세상은 금세 험악해지고 말았다. 판도라는 깜짝 놀라 급하게 상자를 닫았으나 상자 안의 나쁜 것들은 이미 전부 빠져나온 뒤였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희망은 빠져나가지 않아서, 사람들은 상자에서 빠져나온 악들이 자신을 괴롭혀도 희망만은 절대 잃지 않게 되었다. 성경의 거짓 창조론과 비슷한 내용으로 인간의 허구적 상상력이 만든 그리스 신화다.

극심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와 같다. 남북관계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북핵문제 등으로 연일 안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일자리, 청년실업,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논쟁에서 보듯 국민의 생계는 위협당하고 있다. 고령화, 부도 양육권, 치매 환자, 인구절벽, 빈부 갈등, 사회폭력 등 각종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극히 암울하고 비관적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헬조선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내 잘못은 숨기고 다른 사람의 과오나 허물을 들추어 자신의 입장을 세우거나 이익을 구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한국은 상대는 악이며 우리 편은 선이라는 양극화의



<국태민안> 기원 한마당 공연 / 미당국패 '피루'

극단을 달려오며 소모적인 정쟁(政爭)으로 시달려왔다.

판도라 상자에 남은 희망의 메시아 구세진인 정도령의 발란반정

'발란반정'(撥亂反正), 난을 평정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한다는 의미다. 시대의 변란이 극에 이르러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난을 진압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사는 원인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해 엄정한 법과 막강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각종 사회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시대의 극심한 혼란을 잠재우고 옳고 바른 미래의 질서를 회복할 인류 최고, 최선, 최후의 발란반정이 구세진인(=생미복불, 정도령)을 통해 진행 중이다.

인간에게 근심 걱정과 불안 공포를 갖게 하고, 각종 사회병리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마귀요, 그 마귀가 바로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라는 것

을 정확하게 밝힌다.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정욕이 일어나고,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욕심이 나오고,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사기도 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살인도 하고,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갖가지 나쁜 짓도 한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또한, 나라는 주체의식이 피를 써헤 병들어 죽게 만드는 사망의 영인 고로 사람이 늙는 것도 나라는 주체의식 때문에 늙는 것이요, 병이 걸리는 것도 역시 나라는 의식 때문에 걸리는 것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을 항상 버리라는 말씀이 성경과 불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고 또한 나를 버리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주체의식만 제거하면 죄를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들에게 해가 되는 일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구세진인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고 해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식을

제거하는 비결, 나라는 주체의식을 완전히 없애는 비결을 과학적으로 세밀하게 논해주고 있다.

일찍이 혁명가 '체 게바라'는 그의 시집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혁명은 인간 내부에 있다 이웃에게 탐욕을 부리는 늑대 같은 인간은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진정한 혁명가는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제는 '새로운 인간'의 시대다 도덕적인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까지 자신의 목숨 마저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이다" 탄하 스님은 꼭 40년전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도 항복시키는 새로운 인물이 가진 '절대적 도덕'의 힘으로 지구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체 게바라'와 탄하 스님이 말한 그 '절대적 도덕'으로 무장된 '새로운 인간'이 바로 인간자 구세주 생미복불 정도령이다.

그는 한국의 모든 불교의식 및 법회 시 마지막으로 외우고 마치는 보살(菩薩)의 공통된 네 가지 큰 서원(사홍서원四弘誓願)을 몸소 완성하신 분이요,

①중생무번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일체의 중생, 즉 생명체를 구제하기 위하여 깨달음의 피인(彼岸)에 도달하겠다는 맹세. ②번뇌무진서원도(煩惱無盡誓願斷): 다함이 없는, 인간의 그 많은

3편 하단으로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7)
"근심·걱정은 욕심중의 욕심"

사람이 죽는 것은 피가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피가 썩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데 체한 사람의 손끝을 비늘로 따면 시커먼 썩은 피가 나옵니다. 썩은 피가 나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순간 피가 썩었다는 증거입니다.

지 않는 것을 되게끔 욕심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근심·걱정은 욕심중의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은 피가 썩어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순간 피가 썩고, 이 썩은 핏속에서 병균이 발생하고 죽는 것입니다. 피만 썩지 않으면 하나님 되어 오백 살, 천 살 먹어도 늙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8)
"도통(道通)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

도통(道通)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道)지 교화 나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떠드는 것은 기도도, 도(道)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자신을 완전히 이겨내야 도통(道通)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되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에는 함께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졌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생활하는 것이 마귀한테 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때에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더 좋아하고 더욱 더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즉시 '이겼다'로 올라갔습니다.*

구도의 길

지름길로 못 가는 우리들

영생대도의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지름길, 돌아가는 길 그리고 곧장 가는 길이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곧장 가는 길을 택하셨다. 앞에 산이 막히면 뚫고 가야 했고, 강이나 바다가 가로막으면 헤엄쳐서 건너가야 했다. 그러다 보니 무지무지 힘든 고행길을 가셔야 했다. 구세주께서 겪으신 간증담을 들어보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서 영생대도를 이루신 것을 알 수 있다.

지름길은 구세주께서 뚫어놓으신 말하지만 고속도로와 같은 빠른 길이다. 즉 초초로 구세주를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며 일초일초 맡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길이다. 이것은 마치 토굴에서 용맹 정진하는 스님이나 구도자들이 겪고 있는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 모든 세상 인연을 다 끊고 오로지 구세주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생활이므로,

돌아가는 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승리제단에 매일 나오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길이 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유혹과 시련이 와도 매일 드리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견디는 길이다. 지름 승리제단 식구를 거의 대부분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세주께서는 하루속히 나라의 의식을 죽여 없애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셨다. 제발 말씀대로 살라고 간곡히 주문하셨다. 하지만 구세주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별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마저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보인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다. 우주에서 가장 강한 마귀의 영이 바로 자기자신이다. 자신만 이기면 끝인데 쉽지가 않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자신의 말이 구세주와 제단을 최고로 위하는 것처럼 말한다. 나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으면 잠자코 묵언(默言)을 해야 된다. 그걸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다.*

5지역, 4개월 만에 1등



5지역 강춘회 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

5월 2일(화) 본부제단 4월 활동에 대한 시상 이 구역장회의에서 있었다.

4월 성적은 5지역이 2016년 12월 이후 4개월 만에 지역 1등을 차지하였으며, 1지역이 정말 오랜만에 지역 2등을 차지하였고, 결코 시상 권에서 물러나지 않는 4지역이 3등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개인성적으로는 김인숙 집사가 1등, 윤금옥 승사가 2등을 차지하였고 김건균이 3등에 이름을 올렸다.

윤봉수 회장은 "이 길을 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예배를 보는 것이며 그 다음이 전도이다. 그러므로 자기 지역에서 전도를 나가는 날은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부득이 개인 사정으로 자기 지역 전도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참석할 수 있는 날 다른 지

역의 전도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 돌아오는 5월 8일 월요일은 어버이 날이다. 어버이날은 인류의 어버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한명도 빠짐없이 감사헌금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5지역(지역장: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 2등: 1지역(지역장: 김종만, 지회장: 박경옥)
- 3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 *구역 1등: 6구역
- 2등: 58구역(구역장: 윤금옥)
- 3등: 46구역(구역장: 박철수)

- *개인 1등: 김인숙 집사
- 2등: 윤금옥 승사
- 3등: 김건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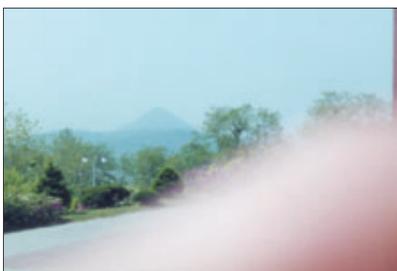
제증교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감로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본부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점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